

-기에 망정이지

다행히 ~했기에 망정이지 (안 그랬으면 ...)

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긴 뒤의 안도감을 나타냅니다. 앞 절에는 자신을 구해 준 것을, 뒤 절에는 그렇지 않았다면 벌어졌을 곤란한 일을 말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일반적인 형태	-았/었기에 망정이지	나왔기에 망정이지
같은 뜻의 변이형	-(으)니까 망정이지	나왔으니까 망정이지
뒤 절	-(으)ㄹ 뻔했다	큰일 날 뻔했어요
띄어쓰기	망정은 명사	띄어 쓴 망정이지
뒤 절	필수	피한 곤란한 일
문체	구어적, 강조적	지난 일을 이야기할 때

■ 언제 쓰나요

일반적인 형태는 -았/었기에 망정이지입니다. 이미 자신을 구해 준 일을 돌아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. 망정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 변이형 -(으)니까 망정이지도 똑같이 흔히 씁니다.

뒤 절에는 피한 곤란한 일을 말하며, 거의 항상 -(으)ㄹ 뻔했다나 큰일 날 뻔했다로 끝납니다: 일찍 나왔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.

이 뒤 절이 있어야 구문이 완성됩니다. 실제로 일어난 일과 일어날 뻔한 일의 대조가 핵심이므로, 뒤 절이 없으면 문장이 매듭지어지지 않습니다.

어조는 강조적이고 구어적이며, 일이 지난 뒤 이야기하듯 말하는 표현입니다.

■ 예문

- 1 일찍 나왔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늦을 뻔했어요.
- 2 우산을 챙겼기에 망정이지 비를 다 맞을 뻔했다.
- 3 미리 저장했기에 망정이지 파일을 다 날릴 뻔했어요.
- 4 옆에서 잡아 줬으니까 망정이지 넘어질 뻔했어요.
- 5 여분을 만들어 냈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.
- 6 확인했기에 망정이지 그냥 보낼 뻔했어요.

■ 비교

-(으)ㄹ 뻔하다
뻔하다만 쓰면 아슬아슬했던 일을 전할 뿐입니다. 망정이지는 무엇이 그 것을 막아 주었는지를 더하므로, 둘은 짝을 이루어 함께 씁니다.
늦을 뻔했어요. (하마터면 늦을 뻔했다) / 일찍 나왔기에 망정이지 늦을 뻔했어요. (일찍 나와서 살았다)

-아서 다행이지
뜻이 매우 가깝고 조금 더 평이합니다. 다행이지는 안도감을 직접 나타내고, 망정이지는 더 강조적이며 이야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
일찍 나와서 다행이에요. / 일찍 나왔기에 망정이지

-기에
여기서 기에는 같은 이유 어미이지만, 고정 표현 망정이지가 붙어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는 뜻이 됩니다.
저렴하기에 구입했다. (저렴해서 샀다) / 확인했기에 망정이지 (다행히 확인했다)

■ 주의

- ✗ 일찍 나왔기에 망정이지 기분이 좋았어요.
- 일찍 나왔기에 망정이지 늦을 뻔했어요.
뒤 절에는 피한 곤란한 일을 말해야 합니다. 좋은 내용이 이어지면 구문이 매듭지어지지 않습니다.
- ✗ 일찍 나오기에 망정이지 늦을 뻔했어요.
- 일찍 나왔기에 망정이지 늦을 뻔했어요.
이미 자신을 구해 준 일을 돌아보는 것이므로 과거 표지가 필요합니다.
- ✗ 우산을 챙겼기에망정이지 비를 맞을 뻔했다.
- 우산을 챙겼기에 망정이지 비를 맞을 뻔했다.
망정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